



[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격식 깬 입담으로 파격 소통행보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01.83 (-9.59)	코스닥	781.38 (-1.55)
금리 (연이자율)	3.770 (+0.185)	환율 (원/달러)	1393.70 (+2.80) (15일)

m-커버스토리

집값 하락세, 내년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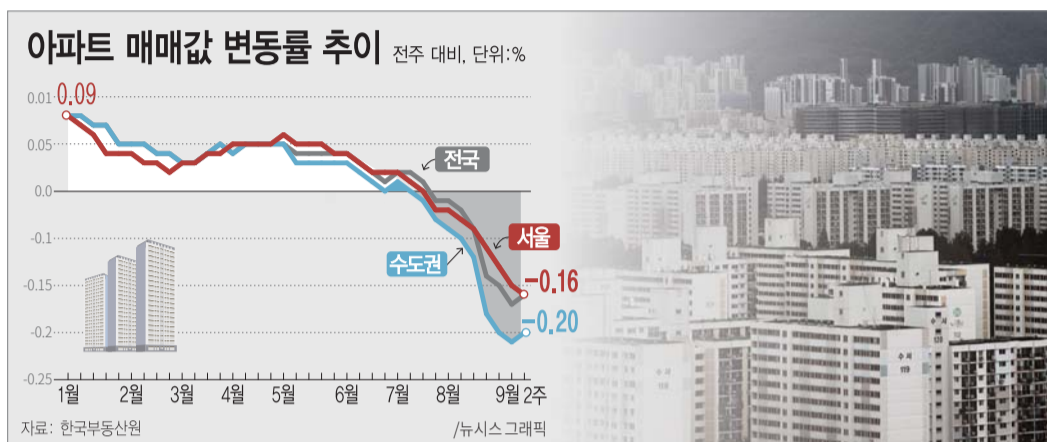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고금리·고물가에 관망세 다주택자 전월세 전환에 강동전세 불안감도 심화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장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이 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부동산 경기의 하강 추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추석 이후 내집마련과 투자에 대해 당분간 매입보다는 관망하고, 실제 투자보다는 '실탄(현금)' 확보를 추천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5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4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관망 속에 저조한 주택 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동안 집값이 제 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



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부동산 경기의 하강 추세가 가파르게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주택 매수와 강동전세에 대한 불안감 심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월세 수요 증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전세·월세 전환으로 인한 공급 확대가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량과 청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592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 5월 9만6979건을 기록한 이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급락하면서 당첨 청약가점이 10점대에 불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청약통장 가입자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스스텝'을 단행한 데다 연내 인상 가능성이 커지

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가격 조정(가격 하락)과 기간 조정(거래 위축)이 나타난다.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의 경우 금리에 후행하므로 곧바로 집값이 급반등을 하기 어렵다. 오는 2024년 기준금리 수준은 2023년 하반기보다 낮을 수 있으나 2022년 9월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社告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대신 종이 빨대와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은 제외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함께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주임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 주 제 :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i14mini)을 드립니다.
*상기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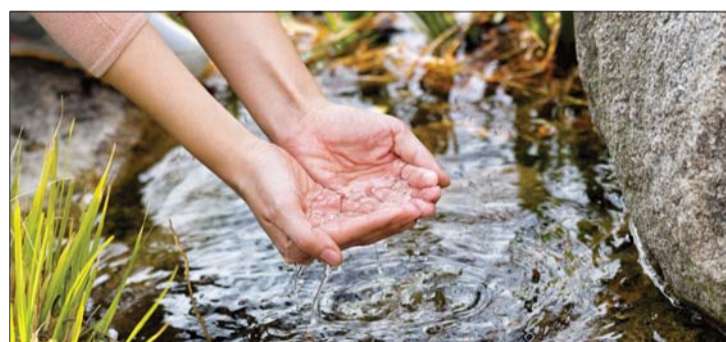
JY의 결단... "삼성의 혁신기술로 환경 지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신환경경영전략' 경영 패러다임 '친환경' 전환 구체 과제별 실행 로드맵 수립 2050 전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삼성이 혁신 기술을 미래에 쓰기로 했다.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커지는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경영전략'을 1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하고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전 사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을 본격화하며 인류 당면 과제인 환경 위기 해결



삼성전자 직원이 화성 사업장 '그린센터(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시킨 물로 조성한 연못에서 손을 적시는 모습. /삼성전자

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과제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했고, 대표 이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협의회와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이행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삼성EHS전략연구소가 준비한

탄소 감축성과 인증제에 참여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탄소감축 인증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점검을 받기로 했다.

◆ 회사 명언 건 도전

삼성전자는 전세계 32개국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TV와 가전

등 전자제품을 연간 5억대 이상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전력 사용량만 25.8TWh에 달한다. 전 세계 ICT 기업 중 가장 많았다.

그나마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높여왔지만, 주요 사업장이 자리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적은 탓에 RE100 가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7.5%로 OECD 평균인 30%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당장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증설과 투자를 지

속해야 하는 상황, 필수 장비인 EUV는 전력 소모량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아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는 타사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필요로 했던 탓이다. 삼성전자의 신환경경영전략이 어려운 결단이라는 얘기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친환경 전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로 오랫동안 부재한 탓에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최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삼성전자도 드디어

RE100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 깨끗하게 만들어 되돌린다

삼성전자는 삼성환경선언후 30년만에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 구매자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3선 오찬... 당원 교육 활성화, 민생 현장 강조
▲ 안상훈 사회수석 "한국형 복지국가 요체는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사진 뉴스스

▲ 與 법사위원 "野, 얼마나 저지른 잘못 많기에 감사원 통제하나"
▲ 이준석 "가입 당원을 '민주주의의 적'이라니 많이 나가"



▲ 박진, 美 호건 주지사 내외 오찬... 전기차 보조금 우려 전달 /사진 뉴스스
▲ 北 '선제 핵공격'에 北·한미, 강대강 대치... 한반도 긴장 재고조